

정당행사에 공무원 동원한 설난영 여사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설난영 여사의 과거 행적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설 여사는 지난 2006년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이 모씨에게 특정정당 행사를 준비시켰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설 여사가 주최한 ‘한나라당 경기도 부인 모임’의 초청장을 발송하고 참석여부까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공무원을 정치행사 준비에 동원한 것은 그 자체로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설 여사는 더 나아가 거짓 해명까지 했습니다.

설 여사는 22일 언론에서 “지사 배우자니까 31개 시·군 부인 모임을 해서 지역 상황과 고충을 취합해 듣고 싶었다.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건에는 31개 시·군에서 선출된 기초단체장이 아닌 한나라당의 모임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한나라당 부인 모임이 공적인 일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원내외 사모님을 모시고 오찬모임을 하겠다”는 문구도 생생합니다. 설 여사가 보기에 한나라당 원외위원장 사모가 공직이라면, 김건희 여사는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이라도 된다는 뜻입니까.

설 여사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무시하게 한 것도 모자라, 거짓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민간인이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공적업무라는 오만함의 발로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노조에 대한 겉 다르고 속 다른 인식, 외유성 출장도 괜찮다는 사고방식, 현장을 평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특권의식, 그리고 공무원 동원에 대한 거짓 해명까지. 설 여사의 숨은 본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행보를 이어가는 설 여사. 즉각 사죄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2025년 5월 24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박관천